복음 성분은 절망 99% 희망 1%

(욥기 14:1~22)

7.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8.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9.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10.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11.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 같이
12.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13.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14.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15.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복음 성분은 절망 99% 희망 1%>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복음 성분은 절망 99% 희망 1%'

복음을 먹는 음식으로 비유해서 성분을 분석해보자면 99%는 절망이고 1%는 희망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증거는 아흔아홉 개의 절망과 한 가지를 희망함을 뜻합니다. 오늘 욥기서의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것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생활화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파도 속에서 복음이 나타나질 않고 파도를 뚫고 나가기가 힘이 듭니다. 돈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면 그 문제의 파도를 복음으로 뚫고 나가질 못합니다. 그 이유는 복음을 먹었을 때 나타나야 하는 아흔아홉 개의 절망 성분이 내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흔아홉 개의 절망이 땅에 버려지면 나머지 한 개의 희망 성분조차도 사라집니다. 1%의 희망은 독자적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닌 99%의 절망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희망이 가지는 속성이기 때문에 절망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희망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복음이 가져다주는 99%의 절망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1%의 희망도 존재할 수 없고 복음은 힘을 잃고 맙니다.

희망과 절망이 무엇일까요?
희망과 같은 의미의 말로 소망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을 중요시해서 믿음을 가졌다면 소망과 사랑이 연이어 나타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소망을 부활과 연결시키면서 죽은 다음에 부활하여 신령한 몸을 입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내가 앞으로 5년 안에 연봉 1억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소망을 갖습니다. 그러나 5년 뒤에 큰돈을 벌고 싶다는 미래의 소망을 가지는 이유는 지금 돈을 좋아하고 돈으로 기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소망하는 자들은 지금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돈을 좋아하고 승진이나 자녀의 일류대학 입학을 기뻐하면서, 기독교의 복음이 약속해주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것은 자기기만일 뿐입니다. 이러한 설교를 한다면 교회의 사기입니다.
마치 이것은 너무 풍요로운 환경에서 자라서 전혀 돈에 관심이 없는 사람과 같습니다. 저는 어느 부잣집에서 대학교 다니는 자녀들의 책상에 만 원짜리가 여기 저기 굴러다니고 있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돈에 무관심한 사람이 5년 뒤에 반드시 1억 연봉 자리에 서겠다는 소망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지금 그것으로 인해 좋은 줄 모르고 지금 기뻐할 수 없다면 소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을 좋아하지도 않고 기쁨의 이유로 삼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는 천국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소망이 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승진이 좋고 일류대학 입학이 좋고 멋진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믿는데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소망으로 여길 수는 없습니다. 소망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기뻐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소망에는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희망(希望)이나 소망(所望)이라는 단어에는 바랄 망(望)자가 들어갑니다. 즉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소망하는 것입니다. 5년 뒤에 1억 연봉의 자리에 오르기를 바라는 것은 즉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절망은 바라보는 시선이 끊어진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소망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1억 연봉의 자리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에게는 다른 모든 것을 바라보지 않는 절망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 상태에서만 단 한 가지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모르고 세상에서 희망을 좇는 사람들조차도 99%의 절망을 전제로 하여 1%의 희망을 성립시킬 수 있는 것입니

다.
소망의 첫 번째 속성이 지금 기뻐하는 것으로 미래를 기대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소망하는 것은 곧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에 대해 절망함을 뜻합니다. 십자가 복음은 하나님 단 한 분으로 지금 기뻐하기 위해서, 육체를 통해 만나는 세상의 모든 밀접한 관계들에 대해 바라봄이 끊어지게 하는 절망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흔아홉 번 절망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을 희망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를 들어 10년 뒤에는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가기를 소망한다면 아직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종교의 신을 믿고 있을 뿐,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점에 주목해서 아흔아홉 개의 절망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단 하나의 유일하고 궁극적인 하나님을 소망할 수 없음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욥기는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에 우리에게서 일어나야만 하는 일을 가르쳐줍니다. 욥이 지금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고통으로 인한 마음의 두려움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손을 거두어 달라'는 간구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손은 욥에게 주신 고통과 재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이 생긴 이유는 욥의 마음 안에 육체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대상들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재산과 가족과 명성과 건강 등이 마음에 살이 되어 붙었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찢겨져 나가자 마음의 살이 되었던 부분에서 피가 흐르는 아픔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도 아프고 마음도 아픕니다.
그리고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났습니다. 마음이 공백 상태이거나 채울 수 있는 대체품을 찾지 못할 때에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느꼈던 감정도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스스로 좋고 나쁜 판단을 통해서 좋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마음에 담아야 하는데 가지고 있었던 것이 없었기에 두려움이 생겼던 것입니다. 마음의 공백 상태는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채우려고 합니다.
이러한 두려움에 쫓긴 욥의 마음은 절망으로 몰리게 됩니다. 고통 가운데 인생이 덧없고 빨리 지나가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인생에 대한 허무함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 짧은 인생에서 더 이상 마음의 공백을 채울만한 것이 없다고 여기게 된 것입니다. 열 명의 자녀도 가져보고 막대한 재산과 명성도 가져보았지만 결국 이것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었고, 마음의 공백을 채울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에 허무함만 남게 되었음을 깨닫고 이 세상 전체에 대해서 절망하는 것입니다.
욥은 이 상황이 개선되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돈이 없을 때에 돈 달라는 기도를 하고, 건강이 없을 때에 건강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함으로서 상황이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까

지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체성을 인정해왔고, 자신의 주체성에 대한 알리바이를 유지해왔기 때문입니다. 자녀라는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주체성은 부재하고 하나님의 주체성만을 활성화하고 인정해왔습니다. 자신이 이끌어온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욥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의심하는 일이었기에 그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현재 주어진 상황을 개선시킬 수 없다는 것은 곧 절망입니다. 바라봄이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개선을 바랄 수 없는 절망적 상황이 욥을 의심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7~9절에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움이 나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혀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끝이라는 이야기를 10절에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니 있느냐'라고 합니다.
지금 욥은 예수님의 부활신앙을 가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죽으면 스올로 들어가서 끝이 난다고 여기는 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몰리다보니 죽은 다음의 세계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마음을 둘 곳이 없다보니, 죽음 이후에 대해 시선을 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나무를 보면서, 세상에 대해 절망한 욥의 마음은 죽음 너머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죽은 후의 다시 살아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이것은 부활 신앙에 대한 이해가 아니지만 절망에 몰린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가를 보여주시려는 것이고, 우리 마음도 이렇게 몰아가야 함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는 절망뿐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마음은 세상이라는 삶의 현장을 빠져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 완전히 절망할 때에 죽음 이후에 있을 삶의 영역에 대에 의식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마음이 몰리고 쫓겨야 하나님을 희망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은 가족과 재산과 건강과 명성을 다 잃었고 아내와 친구들조차도 그를 비난하고 떠났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그렇듯이 이러한 상태가 될 때에 세상 바깥에 계신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고 얻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소망할 수 없습니다. 10년 뒤에 얻고 싶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더 이상은 세상에 대해 희망과 소망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절망으로 내몰릴 때에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소망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기뻐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뻐하지 않는 것을 미래에 소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 백년 살고 싶어”라는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푸른 초원에 집짓기를 소망하는 이유는 지금 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으로 기뻐하지 않으면서 하늘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거짓말은 이제 교회에서 사라져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좋아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대해 완전히 절망해야만 합니다. 복음인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라는 오직 단 하나의 소망을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99%의 절망을 안겨줍니다. 그 소망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나타났고, 승천을 통해 성취하심으로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사랑의 단계로 돌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서 믿음은 곧 주님의 죽으심을 나의 죽음으로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소망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은 세상에 대해 절망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형통을 소망하다가도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믿으면 소망하기를 멈추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이 세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죽음으로 절망할 때에, 내 마음은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에 내가 절망한 99%의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펼치시려는 뜻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절망한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희망을 갖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은 에베소서 2장의 말씀대로 하늘에 앉힌바 된 상태에서 하나님으로 채움을 입고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이 생활 속에서 힘을 발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대한 99%의 절망의 성분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대해서는 절망하여 죽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희망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세상의 모든 격언이 희망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대한 희망이 곧 죄악이고 나의 죽음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그러한 삶을 중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세상에 대해서는 절망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